

---

## 표준어 정책의 새로운 방향 - 복수 표준어 발표의 경과와 의의 -

최혜원 · 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

### 1. 들어가기

지난 8월 31일 그동안 비표준어로 간주되었던 ‘짜장면’이 표준어가 됐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네티즌 공간에서는 ‘짜장면을 짜장면이라 부를 수 있는’ 이날을 짜장면 해방의 날로 부르자는 제안까지 나왔다. 국민 언어생활의 혼란을 막고 언어생활에 편리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존재한 ‘표준어’는 그 일부가 국민에게 큰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존재해왔다. 이 글에서는 수년간 비판의 대상이 되어 온 표준어 정책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된 ‘복수 표준어 확대’의 의의와 복수 표준어를 발표하기까지의 경과, 그리고 앞으로 표준어 정책 방향에서 이를 이어 나가기 위한 방안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 2. 새로운 복수 표준어 발표의 의미

애초 표준어 규정 개정의 전반적인 취지를 보면 널리 쓰이는 말을

표준어로 삼고 둘 다 널리 쓰이면 복수 표준어로 삼는 기본 방향을 취하고 있다. '표준어 모음'도 폭넓게 복수 표준어를 인정하려는 태도는 동일하다. 이는 언어생활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어의 어휘를 풍부하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 취지는 표준어 규정이 개정된 1988년 당시 “현실에서 멀던 형태를 제거하고 새로 자리를 굳힌 형태들을 표준어에 입적시켜 좁으로써 그동안 현실과 법 사이에서 곤란을 겪던 국민들을 편하게 해 주는 데 큰 기여를 했다(이익섭 1988: 23).”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표준어 규정은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으로 언어생활의 걸림돌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정보화 시대의 빠른 변화 속에서 사람들의 언어는 그만큼 변화무쌍하고, 표준어 규정은 이에 따른 변화를 따라갈 수 없는 것이다. 규정이라는 정해진 틀이 살아 있는 언어를 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규정이 존재하는 한 이러한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표준어 규정의 근본적인 한계는 표준어 규정 자체를 폐기하자는 다소 과격적인 주장으로까지 이어진다. 이 주장은 표준어 규정은 대규모의 언어 실태 조사와 다양한 사전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 다수의 선택을 받는 사전이나 문법서가 표준어로 인정받음으로써 그 역할은 끝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사전 편찬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고, 최근 들어 들려오는 종이 사전의 폐지 등 민간 사전 편찬 시장의 현실이 더욱 척박해져 가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주장은 아직 현실화하기에 거리가 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표준어 정책이 국민 언어생활 향상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립국어원이 풀어야 할 숙제이고, 그 첫 번째 시도가 39개의 복수 표준어 발표라고 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 이번 복수 표준어 발표는 현실과 언어 규범 사이의 괴리를 정리하고 어문 규범을 현실화할 것인가의 고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3. 복수 표준어 제시 경위

#### 3.1. 비현실적인 표준어 규정에 대한 대안으로서 복수 표준어 논의

개정된 표준어 규정의 내용과 관련된 논의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쟁점이 되어 온 것은 바로 표준어 규정이 현실 언어와 괴리되어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이는 표준어 규정이 개정되기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문제인데, 2000년대에 들어서 현행 표준어 규정의 비현실성을 비판하며 규범의 현실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규범의 현실화는 복수 표준어의 설정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는데 민현식(1999)에서는 구형과 신형이 대등한 분포로 같이 널리 쓰이거나 또는 한 사람의 발화자에게서 두 형태가 동의어로 잘 쓰이거나 이해 어휘로 수용되고 있다면 복수 표준어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고, 최경봉(2006: 352)에서는 단일 표준어 우선 원칙인 현 규범의 형태를 탈피한 복수 표준어를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 3.2. 《표준국어대사전》의 비표준어

1999년에 발간된 《표준국어대사전》은 일반 원칙만을 정하고 있는 어문 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을 큰 특징으로 하고 있다. 어문 규정이 정한 원칙을 구체적인 단어 하나하나에 적용해 이용자가 사전만으로도 표준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어문 규정을 실제 단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어문 규정의 확장 가능한 '예시' 단어로 봐야 할 것을 확정적인 '기준' 단어로 해석하고 기존 국어사전이 정했던 현실에서 많이 쓰이는 비표준어를 그대로 비표준어로 답습한 결과 현실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를 비표준어로 재생산하였다. 비표준어에 대한

사전의 기술 또한 ‘~의 잘못’으로 표현되어 표준어와 비표준어에 대한 이분법적인 태도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이로 인해 《표준국어대사전》은 일반에 공개된 이후 경직된 사전 기술에 대해 비판을 받아 왔고, 실제 현실 언어와의 괴리를 보이는 단어는 수많은 민원의 대상이 되었다. 표준어 규정에 대한 비판적인 논쟁이 진행되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2008년 개정판은 기존의 ‘~의 잘못’으로 기술되던 경직된 방식을 탈피하여 화살표(→)로 처리하는 등 비표준어에 대한 기술 방식을 달리하였다.<sup>1)</sup>

### 3.3. 표준어사정심의위원회

‘표준어사정심의위원회’는 국어 생활의 기준이 되는 ‘표준어’를 언어 현실에 맞게 상시적으로 심의하고 논의함으로써 국어 생활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하려는 목적으로 2003년도에 조직되었다. 총 7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200여 단어를 검토하였는데,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말을 복수 표준어로 폭넓게 받아들이는 것이 심의의 기본 방향이었다. ‘표준어사정심의위원회’에서는 표준어가 국어 생활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체계적인 어문 규범 보급의 체제를 마련하는 한편, 어문 규범에 언어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특히, 국어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방언과의 연계성을 강화한다는 세부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내용은 표준어 정책 방향의 전환에 대해 준비되지 않은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표준어라는 지위를 얻지 못하고 표준어 정책의 역사 한편에 남아 있게 된다.

---

1) 비표준어를 잘못된 것으로 보는 것에서 탈피한 태도는 국어원의 ‘가나다전화(현 국어생활종합상담실)’의 답변에도 반영되었다. 단순히 ‘표준어다, 비표준어다’가 아닌 규범이 정하고 있는 범위는 이러하지만 현실 언어의 가능성을 적극 인정하는 방향으로 기본 방침을 정하고 있다.

### 3.4. 《표준국어대사전》 보완을 위한 실태 조사

표준어 규정이 어휘 중 극히 일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마저도 현실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말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문제점은 《표준국어대사전》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일반에서 널리 쓰이는 어휘를 폭넓게 반영하지 못했다. 이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된 배경에는 언어 사용 실태에 대한 다양한 면모를 파악하는 노력이 없이 국어학자들이 정립한 표준어 규정에만 의지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 언어와 거리가 먼 말을 표준어로 정하거나 널리 쓰이는 말이 표준어에서 빠진 것은 이러한 조사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어 현실을 폭넓게 조사하여 널리 쓰이면서 국어를 풍요롭게 하는 말들을 찾아냄으로써 ‘표준어’가 권위 있고 엄격한 말이 아닌 편하고 풍요로운 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립국어원은 2009년 일반에서 널리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비표준어로 처리된 어휘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실제 사용 정도를 확인하여 사전 집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표준국어대사전》 보완을 위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의 비표준어 약 8,500항목, 2003년~2006년 표준어 사정심의위원회 논의 자료 약 150여 항목, 표준어 관련 실용서(《한국어가 있다》, 《우리말 바꾸기》, 《나만 모르는 우리말》, 《돋보기 즐보기》 등)를 대상으로 검토하여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비표준어, 사전 미등재어 3개(개기다, 손주, 알쌍하다) 항목 등 총 76개의 어휘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서울시 거주자 총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아래 표는 조사 결과 표준어와 대비하여 비표준어 사용률이 50%를 넘는 어휘를 모아 놓은 것이다.

번호	현행 표준어	대응 비표준어	표준어 사용률	비표준어 사용률	비슷하게 사용	둘 다 미사용
1	형허케	형하니	6.4	84.2	1.5	7.9
2	남우세스럽다	남사스럽다	7.2	88.4	1.4	3.0
3	허섭스레기	허쩍스레기	9.9	77.6	1.5	11.0
4	복시빠	복숭아빠	11.0	85.4	3.1	0.6
5	맨송맨송	맹송맹송	11.1	83.9	1.7	3.3
6	만날	맨날	11.3	84.8	3.2	0.6
7	괴발개발	개발새발	11.5	78.6	2.0	8.0
8	야멸치다	야멸차다	11.6	76.7	2.2	9.5
9	목물	등물	12.7	69.6	2.6	15.1
10	거치적거리다	걸리적거리다	12.7	85.3	1.8	0.2
11	바둥바둥	바둥바둥	13.5	82.8	2.2	1.4
12	쌈싸래하다	쌈싸름하다	16.0	78.1	3.4	2.4
13	들이켜다	들이키다	16.6	76.0	5.6	1.7
14	끼적거리다	끄적거리다	17.9	74.7	3.6	3.8
15	두루몽술하다	두리몽실하다	18.3	76.9	4.0	0.8
16	세간	세간살이	19.0	68.3	5.5	7.2
17	새치름하다	새조름하다	20.4	71.0	2.2	6.4
18	자장면	짜장면	21.8	73.9	4.2	0.1
19	찌뿌듯하다	찌뿌둥하다	26.8	70.0	2.9	0.3
20	-기에	-길래	27.1	65.4	5.8	1.7
21	간절이다	간지럽하다	27.1	68.9	3.5	0.4
22	토담	흙담	27.4	55.2	8.1	9.2
23	연방	연신	27.5	58.8	7.5	6.2
24	밧자리	못자리	27.8	65.9	2.4	3.8
25	어수룩하다	어리숙하다	28.5	65.7	5.2	0.6
26	아웅다웅	아웅다웅	29.5	66.1	3.9	0.4
27	약수건	약보자기	29.8	54.7	3.2	12.3
28	아비	애비	29.8	53.2	11.0	6.1
29	꼬드기다	꼬시다	32.0	60.1	6.9	1.0
30	메우다	메꾸다	32.3	60.5	6.4	0.8
31	떨어뜨리다	떨구다	33.3	58.1	7.6	1.0
32	눈초리	눈꼬리	35.5	56.5	7.5	0.5
33	먹을거리	먹거리	35.6	54.4	9.5	0.5
34	치근거리다	추근거리다	38.4	53.8	6.8	1.0
35	오순도순	오손도손	40.5	53.6	5.5	0.4

### 3.5. 국어심의회(전문소위원회)

2010년 2월 소집된 국어심의회에서는 1988년 표준어 규정 개정과 1999년 《표준국어대사전》 발간 이후 국어 사용 양상의 변화와 다양화로 인해 표준어를 추가하고 표기 개선에 대한 그동안의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통용되고 있는 비표준어, 방언에 대한 표준어 자격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였다. 다소 파격적인 복수 표준어안은 1차 본 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였는데 국어학, 사전학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소위원회에 이 문제를 맡겨 논란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였다. 전문소위원회는 3회에 걸쳐 그동안 일반인들의 언어 의식 속에 표준어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어휘 44개를 전년도 《표준국어대사전》 보완을 위한 실태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유형별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 널리 쓰이는 비표준어의 복수 표준어 자격 심의(30건)
  - 예) 횡하니(囹횡허케), 남사스럽다(囹남우세스럽다), 허접쓰레기(囹허섭쓰레기)
- 통용되는 방언 및 기존 표준어와 의미 차가 있는 비표준어의 표준어 자격 심의(10건)
  - 예) 싸가지(囹싸수), 나래(囹날개), 내음(囹냄새)
  - 예) 손주(囹손자, 트락/囹뜰, 맹송맹송/囹맨송맨송, 바둥바둥/囹바둥바둥, 떨구다/囹떨어뜨리다)
- 해당 분야에서 표기 수정을 요청한 민원 사항 심의(3건)
  - 囹태전/택전, 囹폼세/폼새, 囹학꽂치/학공치
- ‘자장면’의 표기 심의
  - ※ 囹: 표준어, 囹: 현 올림말

검토 대상 가운데 속어(싸가지, 꼬시다)와 해당 지역에만 있는 고유한 단어(과메기) 등 몇몇 단어는 논의 과정에서 제외한 후 일반에서 많

이 쓰이는 단어들을 대거 복수 표준어로<sup>2)</sup>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전문소위원회의 안은 국어심의회에 다시 회부되어 39개의 복수 표준어를 인정하는 원안 그대로 통과되었다.

## 4. 복수 표준어 설명

이번에 표준어로 인정된 단어들은 사전에서는 비표준어로 처리되었지만 기존에 쓰이던 표준어보다 일반에 널리 알려진 단어들이다. 사전에 표준어로 처리된 '황허케'나 '고운데' 같은 말은 일상 언어에서 쓰임을 거의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일반에 낯선 말이다. 현실 언어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쓰임 빈도가 현격히 떨어지는 말을 표준어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새 표기를 인정하는 데서 올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표기는 쓰임이 거의 없더라도 그대로 두었다.

39개 항목은 '맨날/만날'과 같이 기존 표준어와 의미가 일치하는 경우, '오손도손/오순도순'과 같이 기존 표준어와 어감의 차이가 있는 경우, '짜장면', '택견', '폼새'와 같이 일반이나 그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표기 등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

### 4.1. 현재 표준어와 같은 뜻으로 추가로 표준어로 인정한 것

#### 4.1.1. 맨날/만날<sup>3)</sup>

'맨날'은 '매일' 또는 '맨'에서 유추되어 어형이 변화한 것으로 여겨진

---

2) 여기서 '복수 표준어'라 함은 의미가 같은 동의어뿐만 아니라 어감이나 의미 차이가 있는 단어들도 포함한다.

3) 새로 표준어로 정한 말은 빗금 앞에 기존 표준어는 빗금 뒤의 순서로 배치하였다.

다. ‘만날’과 뜻이 같고 ‘맨날’의 사용률이 높아 복수 표준어로 처리하였다.

#### 4.1.2. 허접쓰레기/허섭스레기

‘허섭스레기’의 동의어를 논의하면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허접스레기’로 표기할 것인가, ‘허접쓰레기’로 표기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허접스럽다’와의 관련성을 강조하면 ‘스럽다’에서 ‘쓰레기’가 파생될 수 없으므로 ‘허접스레기’로 하는 것이 어법에 맞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어법에 정확히 맞춘 ‘허접쓰레기’를 ‘허섭스레기’의 동의어로 본다 면 이는 또 다시 언어 현실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보아 ‘쓰레기’가 붙은 합성어로 보는 언중의 의식을 반영한 ‘허접쓰레기’를 ‘허섭스레기’의 동의어로 결정하였다.

#### 4.1.3. 간지럽히다/간질이다, 못자리/뿔자리, 흙담/토담

‘간지럽다’에 사동 접미사가 붙은 ‘간지럽히다’, 어근 ‘간질’에 동사화 접미사 ‘-이다’가 붙은 ‘간질이다’는 조어법 자체가 다르므로 별개의 단어로 볼 수 있다. 굳이 둘 중에 하나만을 표준으로 정하기보다는 다른 형태의 조어를 인정하여 둘을 동의어로 보았다.

이번 심의에서는 ‘흙담/토담’ 등 어휘 구성(고유어 합성어와 한자어 포함 합성어)이 서로 다른 말들은 모두 개별 어휘로 처리하여 그 둘을 복수 표준어로 결정하였다. ‘뿔자리’ 또한 한자어 포함 합성어 ‘뿔자리’와 동의어로 처리하였다.

#### 4.1.4. 세간살이/세간

사전에서 이와 유사한 단어 구성인 ‘살림’과 ‘살림살이’의 일부 뜻이 동의어로 처리되어 있으므로 같은 방식의 어휘 형태인 ‘세간’과 ‘세간살이’ 또한 동의어로 결정하였다.

#### 4.1.5. 등물/목물

예전 여름 수돗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인 ‘등물’은 서울 주민의 언어 실태 조사에서 보듯이 ‘목물’보다 훨씬 더 많은 쓰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어휘의 조어법 자체가 다르므로 굳이 둘 중 어느 하나만을 표준어로 고집할 필요는 없다.

#### 4.1.6. 복숭아뼈/복사뼈

‘복숭아뼈’는 ‘복사뼈’의 잘못이나 방언으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복숭아’와 ‘복사’는 본말, 준말의 관계에 있는 말이라는 것, 그리고 단독형으로는 ‘복사’보다 ‘복숭아’가 현대인에게 친숙한 말이라는 사실로 볼 때 ‘복숭아뼈’는 ‘복사뼈’의 비표준어가 아닌 동의어로 다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 4.1.7. 씹싸름하다/씹싸래하다

‘씹싸름하다’는 ‘조금 쓴 맛이 있는 듯하다’라는 뜻의 표준어 ‘씹싸래하다’와 그 의미와 쓰임이 비슷한 말로, 북한 사전에 올라 있는 말이었다. 최근에는 ‘달콤씹싸름하다’는 표현이 빈번히 쓰이면서 일반에 더욱 널리 쓰이고 있다. 또한 ‘씹싸름하다’와 음상이 차이 나는 ‘씹쓰름하다’가 ‘씹쓰래하다’와 함께 복수 표준어로 다루어지고 있는 현상을 고려할 때 ‘씹싸름하다’는 ‘씹싸래하다’의 복수 표준어로 다루어질 수 있다.

#### 4.1.8. 남사스럽다/남우세스럽다

‘남사스럽다’는 그 유래가 지역어<sup>4)</sup>에서 나온 말로 보인다. 그러나 ‘명

---

4) 무식하고 흉물 같은 계집이 내 여편네라니 참 내, {남사스러바서}.<박경리, 토지>  
개가죽을 썼는지 도리어 우리가 {남사스러바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박경리, 토지>

게, '물방개', '애순'과 같이 방언이 전국적으로 널리 사용될 경우에는 표준어로 삼을 수 있는 표준어 규정과 퀘를 같이하여 '남우세스럽다'의 동의어로 처리하였다.

#### 4.1.9. 토란대/고운대

'토란의 줄기'를 가리키는 '토란대'는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말이다. 오히려 표준어로 되어 있는 '고운대'는 준말인 '곤대'와 더불어 이 말을 쓰는 사람을 거의 볼 수 없다. 인지도가 매우 떨어지는 '고운대' 외에 어법 상으로도 문제가 없는 '토란대'는 복수 표준어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

## 4.2. 현재 표준어와 의미가 다른 별도의 표준어로 추가로 인정한 것

### 4.2.1. 오손도손/오순도순, 아웅다웅/아웅다웅, 맹송맹송/맹송맹송, 바둥바둥/바동바동

'아웅다웅', '오손도순' 등 상징어는 음상이 달라지면서 뉘앙스도 달라지는 말로 앞서 소개한 동의어로 다루는 복수 표준어와 달리 다른 의미를 가진 별도의 어휘로 다루고 있다. 풍부한 음성 상징어를 특징으로 하는 우리말에서 표준과 비표준으로 가르는 것은 우리말의 다양성을 제한하는 일이다. 더구나 이번에 발표한 의성 의태어는 대부분 표준어에 대응되는 비표준어의 빈도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뉘앙스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옳다.

### 4.2.2. 걸리적거리다/거치적거리다, 끄적거리다/끼적거리다, 새초롬하다/새치름하다, 야멸차다/야멸치다, 두루뭉실하다/두루뭉술하다, 찌뿌둥하다/찌뿌듯하다, 추근거리다/치근거리다

크지 않은 자음과 모음의 교체에 따라 어감이 달라지는 것으로, 앞의 의성 의태어와 마찬가지로 어감의 차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하였다.

이 부류 역시 비표준어가 표준어형보다 훨씬 더 많이 쓰이는데, 예를 들어 태도가 인정사정없이 매섭고 차다는 뜻으로 쓰이는 규범어 ‘야멸차다’는 현실 언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sup>5)</sup>

#### 4.2.3. 연신/연방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행위를 수식할 때 쓰이는 ‘연방’ 또한 ‘연신’과는 다른 어감으로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 4.2.4. 어리숙하다/어수룩하다

‘어수룩하다’가 세상 물정에 어두운 순박함의 느낌이 있는 데 비해 ‘어리숙하다’는 ‘어리석다’와의 연관성을 인정하여 겉모습이나 언행이 아둔하거나 어리석음의 뜻을 두었다.

#### 4.2.5. -길래/기에

‘-길래’를 그동안 ‘-기에’의 비표준어라는 틀을 탈피하여 구어적 표현으로 처리하였다.

#### 4.2.6. 나래/날개, 내음/냄새, 트락/뜰

‘나래’, ‘내음’, ‘트락’은 ‘날개’, ‘냄새’, ‘뜰’을 대신하여 문학적 표현에서 흔히 쓰인 단어들이다. 방언이나 북한어로 처리되던 종전의 처리 방식을 탈피하여 풍부한 표현 양식을 폭넓게 인정하였다.

#### 4.2.7. 개발새발/괴발개발

‘고양이 발(괴발)’과 ‘개의 발’이 합쳐진 말인 ‘괴발개발’은 ‘괴’의 뜻을 잘 몰라 어형이 변한 것으로 보인다. 어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으나 ‘개발새발’이 전국적으로 많이 쓰이고 ‘괴발개발’과 구성 요소가 다

---

5) ‘매몰차다’의 ‘-차다’에 이끌려 ‘야멸차다’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르므로 별도의 어휘로 처리하였다.

#### 4.2.8. 눈꼬리/눈초리

현행 규범은 ‘눈초리’만을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으나, 두 말은 의미가 다른 말로 분화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눈초리’는 대상을 바라볼 때 눈에 나타나는 날카롭거나 사나운 표정을 가리키고, ‘눈꼬리’는 귀 쪽으로 가늘게 좁혀진 눈의 가장자리를 가리킨다.

#### 4.2.9. 떨구다/떨어뜨리다

특히 ‘시선을 떨구다’, ‘고개를 떨구다’, ‘눈물을 떨구다’의 문맥에서 많이 쓰이는 ‘떨구다’는 ‘떨어뜨리다’와 대부분의 의미를 공유하지만 ‘신발을 떨어뜨리다/떨구다’처럼 일부 의미는 쓰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 4.2.10. 메꾸다/메우다

‘메꾸다’는 흔히 시간이나 돈과 함께 쓰이는 추상적인 의미를 중심 의미로 볼 수 있다. ‘메우다’도 그러한 문맥에서 쓰이지만 ‘메꾸다’와는 의미 중심이 사뭇 다르다고 볼 수 있다.

#### 4.2.11. 먹거리/먹을거리

비교적 새로 출현한 ‘먹거리’는 그동안 전통적인 단어 형성법에 어긋난다는 평가를 받아 표준어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묵밭’, ‘접칼’과 같은 단어들이 있음을 볼 때 ‘먹거리’는 국어의 정상적인 단어 형성법으로 만들어진 단어로 볼 수 있다. 다만 ‘전통 먹거리’, ‘먹거리 장터’, ‘먹거리 문화’처럼 ‘먹을거리’와는 다른 의미 사용이 있으므로 이러한 의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 4.2.12. 손주/손자

‘손자’의 잘못으로 처리되었던 ‘손주’는 현실 언어에서 ‘손자’와 ‘손녀’의 통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였다. ‘손주’의 ‘주’에 대응될 한자가 분명치 않아, ‘주’에는 한자 정보를 따로 주지 않았다.

#### 4.2.13. 횡하니/횡허케

전문소위원회에서 옛말로 처리해야 하는지까지 논의되었을 정도로 ‘횡허케’는 현실 언어에서는 거의 들을 수 없는 말이다. 우리말에서는 흔치 않은 음절인 ‘횡’은 국어사전 전통의 흔적으로 거의 사어화되었지만 언중이 사용하지 않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므로 이번 결정에서 굳이 비표준어로 지정하지 않았다.

### 4.3. 표준 표기를 새로 추가한 것

#### 4.3.1. 짜장면/자장면

이번에 표준어로 인정된 단어 중 가장 주목을 받은 ‘자장면’은 어문정책의 경직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예로 일반 대중의 논란을 가장 많이 불러일으킨 말이었다. 그동안 중국에서 온 외래어<sup>6)</sup>로 다루어져 현행 중국어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자장면’으로 표기되어 왔고, 이미 1965년대 한글학회에서 펴낸 《새한글사전》<sup>7)</sup>에 ‘자장면’으로 올라가 있는 등 나름대로 오랜 표기 전통을 지켜 왔다. 그러나 ‘자장면’의 ‘자장’이 중국어에서 유래한 외래어라는 어원 의식이 희박해졌고 대다수의 한국어 화자가 이를 ‘짜장’으로 소리 내는 언어 현실에 따라 ‘자장면’과 ‘짜장면’을 둘 다 인정하게 된 것이다.

---

6) ‘자장면’은 ‘자장(Zhajiāng, 炸醬)’과 ‘면(麵)’이 합성된 말로 지금까지 중국어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자장면’으로 적고 있었다.

7) 국어사전의 자장면(Zhajiāngmian, 炸醬麵) 표기 사례

#### 4.3.2. 택견/태견, 품새/품세

‘대한택견협회’와 ‘대한태권도협회’에서 해당 전문 분야에서 쓰이는 용어인 ‘택견’<sup>8)</sup>, ‘품새’로 교체해 달라는 요구와 관련된 내용이다. ‘택견’의 경우 이만영(1798)의 《재물보》 등 문헌 자료에서 표기가 나타나는 등 비교적 출현 시기가 이르고, 반면 그 역사가 짧은 ‘품새’는 국기원 기술심의회(1987)에서 용어를 통일하면서 정립된 표기이다. 해당 전문인들이 예외 없이 표기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두 표기를 표준으로 인정하였다.

### 5. 사전에서의 복수 표준어 반영

이번 복수 표준어 발표는 표기법을 현실화하기 위해 어문 규정의 개정을 통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이룬 표기형을 사전에 올리는 방법을 십분 활용하였다. 국어심의회에서 결정된 39개 단어는 국어원 누리집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반영되어 일반에 즉시 공개되었다.<sup>9)</sup> 새롭게 바뀐 내용을 알리기 위해 수년에 걸쳐 꾸준히 홍보하고 교육해야 하던 이전 방식에서 탈피한 이러한 즉각적인 반영은 인터넷 시대에 달라진 환경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구분	간행 시기	등재 내용
한글학회 《큰사전》	1957년	관련 어휘 미등재
한글학회 《세한글사전》	1965년	자장면: 중국 음식의 한 가지. 국수를 중국 된장에 비벼 만들.
금성출판사 《국어대사전》	1997년	자장면: 고기와 채소를 넣어 볶은 중국 된장에 비빈 국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1999년	자장면: 중화요리의 하나. 고기와 채소를 넣어 볶은 중국 된장에 국수를 비벼 먹는다.

8) 어원이 분명하지 않으면 보통 발음을 기준으로 표기를 정해 왔음을 고려하면 ‘택견’이 아닌 ‘태견’이 한글 맞춤법에 맞는 표기이다.

9) 《표준국어대사전》을 서비스하고 있는 네이버, 네이버 등에서도 수정된 내용이 반영되었다.

어문 규정을 실제 단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어문 규정의 ‘예시’를 확장 가능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을 확정적인 ‘기준’ 단어로 해석하여 정한 국어사전은 현실 언어와의 괴리를 야기하였고 그 결과 표준어의 경직성을 공고히 하였다. 국어심의회에서 정한 39항목의 복수 표준어만을 확정 사항으로 한정할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는데 이번 《표준국어대사전》에 반영하는 과정에서는 39개 단어를 좀 더 확장하여 적용하였다. 또한 복수 표준어 관계인 두 단어의 의미만을 놓고 보았을 때에는 나타나지 않던 문제가 새로 부각될 때에도 기본적인 결정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전의 틀에 맞추어 수정하였다.<sup>10)</sup>

## 6. 앞으로의 방향

일반 대중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은 ‘짜장면’의 표준어 결정 앞에는 수많은 과제가 놓여 있다. 여전히 표준어로 인정받지 못한 ‘임마, 여지껏, 향그럽다, 널부러지다’ 등 언중이 선호하는 말과 ‘수놈’, ‘수소’와 같이 표준어 규정 안에 있는 비현실적인 단어들은 앞으로의 표준어 정책 방향에 대한 해답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어문 규정이 존재하고 있는 한 어문 규범의 현실화는 쉽지 않다. 현재로서는 규정의 현실화가 어문 규정의 개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립국어원은 당분간 규정 개정의 논의에서 벗어나 우리말의 다양성을 살리고 국어 생활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 표준어 확대 작업에 속도를 내려고 한다.<sup>11)</sup> 어문 규정 자체를 고

10) ‘짜장면’은 ‘간짜장’, ‘쟁반짜장’, ‘아웅다웅’은 준말인 ‘아웅당’의 뜻풀이에도 표준어 정보가 반영된다.

11) ‘표준어 규범 영향 평가’(2011)에서는 복수 표준어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며 광범위한 언어 실태 조사와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치려면 절차상 대응 속도가 떨어진다. 그 대신 《표준국어대사전》이 언어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함으로써 현실과 규범이 조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를 위해 표준어 선정과 직결되는 표제어의 경우 언어 사용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보를 선정하고 국어심의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 사항을 사전에 신속하게 반영할 예정이다.

1930년대의 표준어 사정 작업은 전근대적인 시대 상황과 혼란스러운 언어 상황에 비추어 불가피한 면이 있었지만 지금은 시민 사회에 접어들었고 수준 높은 언어 통일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개별적인 어휘 사정이 현재 단계에서 과연 필요한 작업인지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표준어의 확대는 개별 어휘 사정이라는 제한된 범위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확대 과정을 거친다면 표준어가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소통 불능의 괴물이라는 인식을 깨고, 표준어 정책을 통해 언어 현실과의 괴리를 줄일 수 있다는 일반인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규제 차원의 표준어 정책이 아닌 좀 더 유연하고 자율적인 새로운 표준어 정책 전환의 기반이 다져지리라 기대해 본다.

## 참고 문헌

- 국어연구소(1988), 《표준어 규정 해설》, 국어연구소.
- 김선철(2004), 표준 발음법과 언어 현실, 《새국어생활》 14-1, 국립국어연구원.
- 김주필(1990), '표준어 모음'의 심의 경위와 해설, 《국어생활》 22, 국어연구소.
- 김주필(2004), 표준어 사정 기준과 표준어의 성격, 《새국어생활》 14-1, 국립국어연구원.
- 김세중(2004), 표준어 정책에 대하여, 《새국어생활》 14-1, 국립국어연구원.
- 김희진(1990), 표준어 규정 고시 이후의 몇 문제, 《국어생활》 20, 국어연구소.
- 남경완(2010), 표준어 규정과 표준어 정책에 대하여, 《한국학연구》 33,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 민현식(1999), 표준어와 언어 정책론(1), 《선청어문》 27호, 서울대 국어교육과.
- 민현식(2004), '새로운 표준어 정책의 모색'에 대한 토론회, 《새국어생활》 14-1, 국립국어연구원.
- 안상순(2004), 표준어 어떻게 할 것인가, 《새국어생활》 14-1, 국립국어연구원.
- 이익섭(1988), 국어 표준어의 형성과 변천, 《국어생활》 13, 국어연구소.
- 조태린(2007), 표준어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한말연구》 20, 한말연구학회.
- 최경봉(2006), 표준어 정책과 교육의 현재적 의미, 《한국어학》 31, 한국어학회.